

21세기 범태평양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옹비하는 雙龍精油

성 하 영
〈쌍용정유 업무팀 차장〉

60

70년대 사회의 전부분이 경제개발에 총력투입되던 시기에 석유자원의 안정적확보는 경제개발의 성패가 걸린 가장 절실한 국가적 과제중의 하나였다. 60년대 정유3사의 출범으로 일정한 석유제품 공급기반을 마련한 국내석유산업은 70년대초 1차석유위기를 맞으며 좀더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중동산유국과의 직거래방식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76년에 출범한 쌍용정유가 6월28일로 창립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은 물론 국제환경이 시간의 무게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석유자원을 둘러싼 국내의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석유는 지역적 편재성으로 인해 세계 정치·경제무대의 핵심변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필수품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20년동안 경제발전규모에 발맞추어 몸집을 키워 왔으나 현재 산업규모에 걸맞는 구조적 변화요구에 직면하여 있으며 제도적으로 규제의 틀을 벗기 위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뜻깊은 창립20주년을 맞은 쌍용정유가 지나온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쌍용정유의 미래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雙龍精油의 설립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이후 날로 격화되는 자원내셔널리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석유의 안정확보는 국가의 생존과 경제개발지속을 위한 국가적인 대명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산유국과의 직거래를 통한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산유국과의 외교강화에 나서

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은 정부의 산유국 원유외교 정책에 부응하고 새롭게 전개된 석유무기화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유국과 합작에 의한 정유공장건설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2년여의 추진작업 끝에 75년12월 하루6만배럴의 원유정제 및 3,320배럴의 윤활기유제조를 위한 정부의 석유정제업 허가를 받고 이란의 국영석유회사(NIOC)와 합작으로 쌍용정유의 전신인 한·이석유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직거래방식에 의한 국내최초의 민간베이스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쌍용정유의 온산공장건설사업은 산유국과의 원유직거래 및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요한 국가적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회사를 설립한지 4년여만인 80년5월에는 정유공장이 상업가동을 시작하였고 81년1월에는 윤활기유공장이 상업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윤활정유공장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80년8월에는 합작선의 자본철수에 따라 순수 민족자본에 의한 쌍용정유주식회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7,80년대 경제성장기 쌍용정유의 출범이 국내정유 산업에서 지니는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유국과의 원유직거래방식 도입으로 국내소요원유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둘째, 국내최초로 순수 민족자본에 의한 정유회사로 등장함으로써 과거 메이저의 잔영에 따른 정유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정도 불식하게 되었다.

셋째, 국내최초로 고급윤활기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윤활기유 자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윤활유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끝으로 가동이후 해외임가공사업 개척을 통해 국내정유산업의 신규영역을 확보하고 국내수급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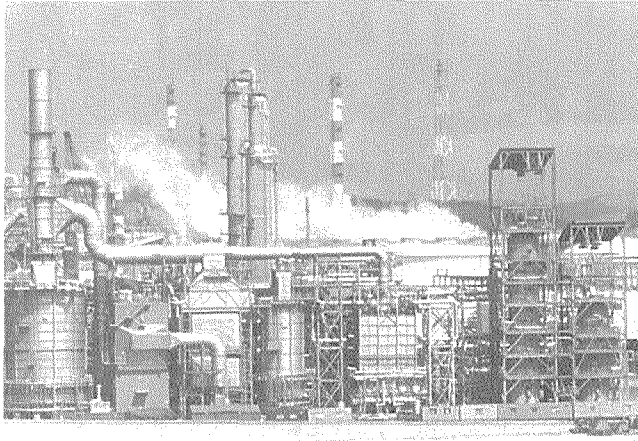


2 雙龍精油의 성장

쌍용정유가 상업가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발생한 제2차 석유위기로 국내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제반 생산활동의 둔화, 탈석유정책추진에 따른 연료대체, 석유류 소비절약추진 등으로 80년에서 82년까지 3년간 처음으로 석유수요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정유의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정유업계는 정제능력 과잉현상이 발생하여 기존업체들이 쌍용정유의 시장침투를 방어하고 침체된 수요에 대응하는 판매확대전략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쌍용정유는 역경과 시련속에 판로를 개척해야 했으며, 또한 후발정유사의 경제성보완을 목표로 건설된 윤활기유 시설도 메이저의 덤핑공세와 수요침체로 판매가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설상가상으로 달러환율이 폭등하고 국제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가동초기의 막대한 고정비부담과 금융비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경영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그러나 쌍용정유는 이러한 악조건을 성장을 위한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아 경영환경에 적극 맞서 나갔다.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의 유기적 관계유지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한



편 해외시장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인 원유임가 공시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가동율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공장운전의 최적화를 이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수율을 극대화시키고 체계적인 에너지절감운동을 추진하는등 내부관리체계의 합리화에 주력하면서 착실하게 판매망을 확충해 나갔다.

또한 국제 유통기유시장의 공급과잉이 몰고 온 메이저의 국내덤핑판매로 유통기유 시설가동의 한계상황속에서도 국내유통기유의 자급체제 구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축적을 통한 품질개선에 주력해 왔다. 이와같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쌍용정유는 82년부터 흑자를 시현하여 안정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87년5월에는 가동7년만에 기업공개를 단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3. 雙龍精油의 도약과 품질고급화

쌍용정유는 가장 경쟁력있는 정유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80년대 후반 이후 시설고도화 및 경영의 질적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91년7월에는 세

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사와 합작을 체결하고 동시에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년 장기원유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합작사업을 바탕으로 1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첨단기술에 의한 대규모 B-C크래킹센터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3월에는 1단계로 일산 7만 배럴 규모의 수소첨가 분해시설과 탈황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가동을 개시하였다. 올해말에 2단계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산 33천배럴 규모의 접촉분해시설이 마무리되면 쌍용정유는 명실상부하게 생산전제품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가 가능한 차세대형 정유공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시설들은 첨단공정의 채택, 투자비의 절감, 자기자본 조달비율의 획기적 증대 등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여 대폭적인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내 석유소비증가에 대응하여 90년에 일산 23만배럴 규모의 원유정제시설을 건설한데 이어 94년에는 하루 20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제3원유정제시설을 완공함으로써 20년전 출범당시 대비 아홉배에 달하는 생산능력증가를 이루어 내어 국내 석유수급안정은 물론 석유제품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과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쌍용정유는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휘발유, 등·경유, 유통기유, 유통유 등의 품질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그동안 판매자시장에 안주해 오던 국내 정유업체에 품질경쟁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89년에 휘발유 옥탄가를 88에서 95로 올리면서 청정첨가제를 최초로 사용한 1단계 품질고급화를 시행한데 이어 94년에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인하와 옥탄가를 95에서 97로 향상시키는 2단계 품질고급화를 동시에 단행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유독성 배기가스인 Nox를 감소시키고 연소실내 퇴적물 제거기능을 갖춘 제5세대 휘발유「슈퍼크린」을 시판함으로써 소비자들

의 고품질선호와 환경육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외에도 94년도에 정유업계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한 청정등유를 공급하고 95년과 올해초에는 유향함량을 정부규제치보다 대폭 낮춘 「0.05슈퍼디젤」을 시판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쌍용정유는 석유관련 산업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최첨단 기술분야인 고급 유향기유사업의 활성화에도 힘써왔다. 쌍용정유는 설립당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인 고급 유향기유분야에 과감히 투자,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유향기유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Gulf사의 수소첨가 개질공정과 Texaco사의 MEK 탈왁스공정 및 Mobil사의 수소화 탈왁스공정 등 최신공정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뛰어난 품질, 높은 효율성 및 낮은 생산비 등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89년7월부터 일산 1,500배럴의 유향유 배합시설을 갖추고 자체 생산하는 고급유향기유를 원료로 하여 드래곤 상표로 고급유향유 완제품을 개발·시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기술개발등을 통해 유향기유사업의 경쟁우위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4. 국내외시장 동시추구전략과 사업다각화

쌍용정유는 판매시장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수출부문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사업활동의 영역을 넓혀 왔으며, 후발정유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방침을 고수해온 결과 가장 경쟁력 있는 정유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쌍용정유의 경영전략은 첫째, 내수판매 위주에서 탈피하여 공장의 최대가동, 내수판매후 잉여제품의 전량 수출 전략으로 가동을 제고와 수익성향상을 동시추구

하며 둘째, 독자적인 운전조건 개선과 보원투자를 계속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원가절감과 부가가치 극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셋째, 자기자본을 극대화하고 차입금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건설한 재무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전략에 입각하여 쌍용정유는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

가. 정유사업

44만3천B/D규모(공칭)의 원유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연간 약 1억6천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약 50%를 해외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시설은 국내최고의 정제능력 대비 탈황설비를 확보함으로써 정부규제치보다 훨씬 낮은 저공해 등·경유를 생산하는 한편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초에는 저가의 B-C유를 분해하여 고가의 경질유를 생산하는 중질유분해·탈황사업중 1단계로 등·경유를 주로 생산하는 수첨분해·탈황시설을 완공하여 상업가동 하였으며, 올해말에 휘발유를 생산하는 접촉분해시설을 완공하게 되면 생산 전제품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를 달성하는 최첨단 정유공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나. 유향유사업

유향유사업은 유향기유 제조부문과 유향유 배합부문으로 구분된다. 81년 수소첨가 개질공정에 의한 3,320B/D규모의 유향기유 공장을 건설하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80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유향기유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Mobil, Texaco 등의 최신공정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가동효율을 높임으로써 최고품질의 유향기유를 하루 8,500배럴까지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도 공급하고 있다.

한편 89년 하반기부터 1,500B/D의 윤활유 배합시설을 갖추고 자체 기술개발에 의한 고유상표로 윤활유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품질고급화 및 로얄티 절감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물론 윤활기술의 토착화를 선도하고 있다.

다. 석유화학사업

가동후 짧은 기간내에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한 쌍용정유는 단계적으로 석유화학사업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석유화학 기초유분의 공급상황을 고려, 연산 48만톤 규모의 BTX공장을 건설하여 91년부터 가동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97년말 가동을 목표로 연간 60만톤 규모의 PX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동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및 아시아시장의 PX공급부족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B-C크래킹센터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MTBE사업추진 등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석유화학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雙龍精油

90년대들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쌍용정유의 노력은 각별하다.

쌍용정유는 공장건설 단계부터 충분한 폐수처리시설 분진제거시설 등을 갖추어 공장자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완비하고 꾸준한 시설개선 및 신공정 도입으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 제품생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95년에는 ISO14000 시범인증을 취득하여 제조시설 및 경영능력의 환경적합성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쌍용정유는 업계최초로 충분한 등·경유 탈황시설을 갖춤으로써 초저유황 등·경유를 앞장서 공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석유수요의 고급화에 부응하여

약 1조원 규모의 중질유분해·탈황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 전제품의 경질화 및 저유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고품질의 환경친화적인 석유제품을 동일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6.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될 쌍용정유의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쌍용정유는 범태평양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유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생산비가 가장 낮은 회사로서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세계 최첨단 기술에 의한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B-C크래킹센터 완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은 물론 환태평양지역의 석유수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고급 윤활기유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내시장에서는 품질고급화와 서비스 차별화전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신 정제시설을 활용하여 저공해형 고품질 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소비자가 불편없이 당사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주유소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밀착하는 고객만족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이미 사업다각화의 발판을 마련한 석유화학사업중에서도 경쟁력이 우수한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다각화를 위한 다각화가 아닌 세계적 경쟁력을 추구하고 나갈 계획이다.

쌍용정유는 이러한 계획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우뚝설 것이다. ♣